

#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에 대한 초등교사 인식\*



옥현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노달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 1. 머리말

초등학교 통합교과 교과서는 제4차 교육과정기(1981년 12월 고시) 이후 반세기 가까이 초등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통합교과 교과서는 일상의 삶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유치원 교육 단계와 교과로의 본격적인 분화가 시작되는 초등 중학년(3-4학년) 교육 단계 사이에서 초등 저학년(1-2학년) 학습자의 발달을 촉진하는 데 일차적인 교수·학습 자료 역할을 담당해 왔다(정광순·홍영기·강충열, 2012).

초등 교육과정에서 교과서의 높은 활용도를 고려할 때 교과서 개선을 위한 노력은 교육 공동체의 주요 과업 중 하나라 판단되며, 이에 본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새롭게 개발되어 초등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통합교과 교과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교과서 관련 연구의 상당수는 교과서를 대상으로 삼아 연구자가 설정한

\* 이 연구는 옥현진 외(2025)의 연구 보고서 "현장 교사 및 학생 만족도를 반영한 <통합교과> 교과서 개선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해당 연구의 전문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홈페이지(<https://textbook.ac/>) 자료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준 및 관점에 따라 질적인 분석을 하는 경향이 많으나, 본 연구는 2024년~2025년 사이에 통합교과 교과서를 실제로 사용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단계에 걸쳐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우선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를 추출하기 위해 초등교사 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교사들은 통합교과를 지도한 경험이 최소 3년 이상이고 2015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통합교과 교과서를 모두 지도해 본 경험이 있었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1 — 교사 인터뷰 참여자 정보

참여자	지역	교직경력	통합교과 교육경력
교사A	서울	24년	14년
교사B	서울	23년	3년
교사C	서울	15년	5년
교사D	서울	8년	3년
교사E	경기	12년	6년
교사F	전남	20년	5년

연구자들은 먼저 참여 교사들에게 사전 질문지를 발송하여 서면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 서면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간 비대면 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녹취한 자료를 전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서면 질문지는 참여 교사들의 통합교과 교과서 활용 경험에 대한 기억을 촉발하기 위한 단서로 활용되었으며, 제시된 질문 외에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목해야 할 중점 요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다. 사전 질문지의 주요 문항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전반적인 평가, 만족도, 우수한 부분, 부족한 부분, 학생들이 교과서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 교과서 활동 내용에 대한 만족도 등)
- 2015와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 간 비교(두드러진 차이점, 상대적인 적합도 비교 등)
- 전반적인 개선 방안

연구진은 이 인터뷰를 기반으로 하여 설문도구를 구성하고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 사용 경험이 있는 121명의 초등교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도구는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그중 21개 문항에는 5점 리커트 척도가 활용되었으며(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 마지막 22번 문항은 자유 서술 형태를 취하였다.

설문도구는 인터뷰를 기반으로 총 6개의 범주로 구성되었으며, 각 범주와 해당 범주에 속하는 문항의 수는 다음과 같다.

- 교과서 주요 변화 요소에 대한 인식(4문항)
- 교과서의 전반적인 특징(4문항)
- 교과서 이용 행태 및 활용성(4문항)
- 내용의 정합성 및 적절성(3문항)
- 편집 및 디자인 요소(4문항)
- 다양성과 포용성(2문항)

설문도구의 내적 일관성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Alpha)는 0.9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3. 통합교과 교과서에 대한 초등교사 인식

이하에서는 설문도구의 양적 자료와 마지막 개방형 문항 응답, 그리고 6인 교사의 인터뷰 내용 등을 종합하여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인식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설문 분석 결과 교사들의 반응 점수는 전반적으로 3점대 중반으로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가장 점수가 낮은 문항은 ‘교과서를 사용하면 별도의 보조 자료가 필요하지 않다.’(2.26점)로, 이로 미루어 볼 때 교사들은 실제 수업을 위해 교과서 외에 다양한 보조 자료를 추가로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교사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문항은 ‘교과서의 글자 크기, 글꼴, 여백 등은 학습자 수준에 적절하다.’(4.10점)였으며, 이를 통해 교사들은 통합교과 교과서의 편집 요소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전술한 데이터를 종합하여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에 대해 주목할 만한 교사 인식을 정리하였다.

**표 2 —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에 대한 초등교사 설문 분석 결과(5점 리커트 척도)**

문항	평균점수
1. [주제 선택권 확대]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에서는 교실에서 직접 학습 주제를 개발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의 자율권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동의하십니까?	3.45
2. [분책 수 증가]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는 학기별 4권(1권당 1개월 학습량)으로 분책되었습니다(2015 개정: 학기별 2권/1권당 2~3개월 학습량). 이러한 변화에 동의하십니까?	3.30
3. [모듈형 교과서]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에서는 교실에서 원하는 학습 요소를 취사 선택하여 재조합할 수 있도록 모듈형 교과서의 형태를 취했습니다(한 단원 내에 주제 20개, 놀이 8개, 안전 4개). 2015 개정 교과서(‘해봐요’ 20개) 대비 이러한 변화에 동의하십니까?	3.31
4. [배움 지도 도입] 2015 개정 교과서의 단원 도입부에 제시되었던 ‘무슨 활동을 할지 살펴봅시다’는 2022 개정 교과서에서 ‘배움 지도’의 형태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동의하십니까?	3.21
5.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와 차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잘 보여준다.	3.70
6. 교과서는 초등 저학년 발달 수준에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다.	3.34
7. 교과서는 학생들의 생활 경험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3.64
8. 교과서는 학습자 주도적 학습을 촉진한다.	3.18
9. 교과서는 수업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활용도가 높다.	3.28

10. 교과서 활동은 주어진 수업 시간(차시) 안에 소화할 수 있다.	3.32
11. 교과서를 사용하면 별도의 보조 자료가 필요하지 않다.	2.26
12.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재구성이 용이하다.	3.40
13. 교과서의 내용은 성취기준을 충실히 반영한다.	3.84
14. 교과서에는 내용 오류가 거의 없다.	3.82
15. 교과서 활동은 교과 역량(관찰, 탐구, 표현 등)을 신장시킨다.	3.55
16. 교과서의 글자 크기, 글꼴, 여백 등은 학습자 수준에 적절하다.	4.10
17. 교과서의 삽화·사진은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다.	3.96
18. 교과서의 붙임딱지 등 활동 자료는 교육적 효과가 높다.	3.78
19. 교과서의 디자인은 학습자 친화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4.03
20. 교과서는 다양한 학생(성별,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3.84
21. 교과서는 다문화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4.01

첫째, 가장 자주 언급된 요구는 통합교과 교과서의 학습량 축소에 관한 것이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학습자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를 반영하여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이 교실에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수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제별·플랫폼형·모듈형 교과서를 지향하였다(교육부, 2022; 13). 즉 교과서 내에 다양한 주제, 놀이, 안전 수업 자료를 제시하고 필요에 따라 순서와 분량을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의도와 달리 교사들은 교과서의 특정 부분을 다루지 않고 넘어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학생 및 학부모의 부정적 반응 때문에 교과서에 담긴 모든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언급하였다. 이는 교육과정의 설계 의도와 일선 현장 간의 불일치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즉, 선택권 확대로 인해 늘어난 분량을 교사들이 현실적인 이유로 모두 다 소화하려고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깊이 있는 학습보다는 피상적 활동을 나열하는 수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들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은 교사용 지도서에,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이나 대표적인 활동 예시만 교과서에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둘째, 교사들은 통합교과 교과서에 포함된 일부 활동이 학생들의 발달 수준과 맞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종이접기, 노래, 놀이 활동 등이 지나치게 어렵거나, 제공된 학습 공간이 협소하여 별도의 활동지를 제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읍면 지역이나 다문화 배경 학생이 많은 학급에서는 언어적 어려움과 생활환경의 차이로 인해 교과서 제시 활동이 실행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저학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추상적·철학적 주제나 지나치게 난도가 높은 활동보다는 구체적이고 경험 가능한 활동, 생활세계와 직접 연결되는 주제, 발달 단계에 적합한 학습 과제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셋째, 교사들은 교과서 활동이 전반적으로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특히 과학 탐구 활동의 비중이 축소되고 사회나 도덕 교과와 관련된 주제가 확대된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저학년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며 해당 교과 역량 신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통합교과 교과서에는 자연 탐구와 과학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활동 요소를 보다 균형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사들은 안전교육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별도로 운영되었으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통합교과에 포함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예컨대 안전교육 관련 내용이 포스터식 삽화 위주의 추상적 활동으로 제시되어 실제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차시명과 활동 구성이 직관적이지 않아 교사가 수업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그러하다. 교사들은 안전교육이 저학년 시기 학생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교육 요소인 만큼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지도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생활 안전, 교통 안전, 신변 안전, 재난 안전 등의 핵심 영역은 학년별 발달 수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은 교과서의 편집 및 디자인 요소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글자 크기, 글꼴, 여백, 삽화 등은 저학년 발달 수준에 적

절하며, 학습자의 흥미와 이해를 돕는 데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가 시각적 요소와 학습자 친화적 디자인 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붙임딱지 등 부가 자료의 활용성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떼기 쉽고 활동 차시별로 적합하게 설계된 자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향후 개선 요소로 도출되었다.

#### 4.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통합교과 교과서의 지속적인 개선을 염두에 두고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를 실제 사용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양적, 질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교사들은 분량, 난도, 교과서 내용의 균형감, 구체성, 실제성 등 여러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향후 이러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학습자의 주도적인 선택권과 학습 분량의 적정성이라는 두 가지 요구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일례로 서책형과 디지털 교과서를 병행하고 디지털 교과서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교과서 내에서 학습자의 다양한 선택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둘째, 초등 저학년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아동 발달 전문가, 현장 교사,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자문을 강화하고, 실험본 활용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교과서의 주도적인 활용은 교사의 전문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교사들의 통합교과 교과서 재구성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수와 장학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과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교육 공동체의 인식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에서는 교과서를 하나의 신뢰할 만한, 선별적 활용이 가능한 교수-학습 자료로 보는 시각이 확산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한편에서는 교과서를 절대적인 자료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인식 차이가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가로막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참고 문헌

교육부(2022).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1-1. 지학사.  
정광순·홍영기·강충열(201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통합교과 교육론. 학지사.

### 필자 소개

**옥현진:**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작문학회 학회장, 한국리터러시 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 인문사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학습자 주도성 강화를 염두에 두고 질문 생성 및 탐구 능력 신장에 관한 교육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노 들:** 이화여자대학교와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리터러시 교육과 학습자 주도성 강화를 위한 학생 질문 교육을 연구하고 있다.

# 비상은 믿습니다

당연한 것을 낯설게 바라보는 시선이  
교육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출발한 고민이  
다음 교육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움의 즐거움이  
교육의 가장 강력한 연료라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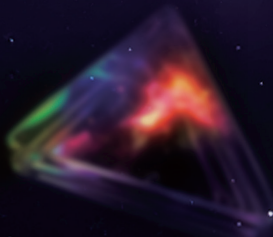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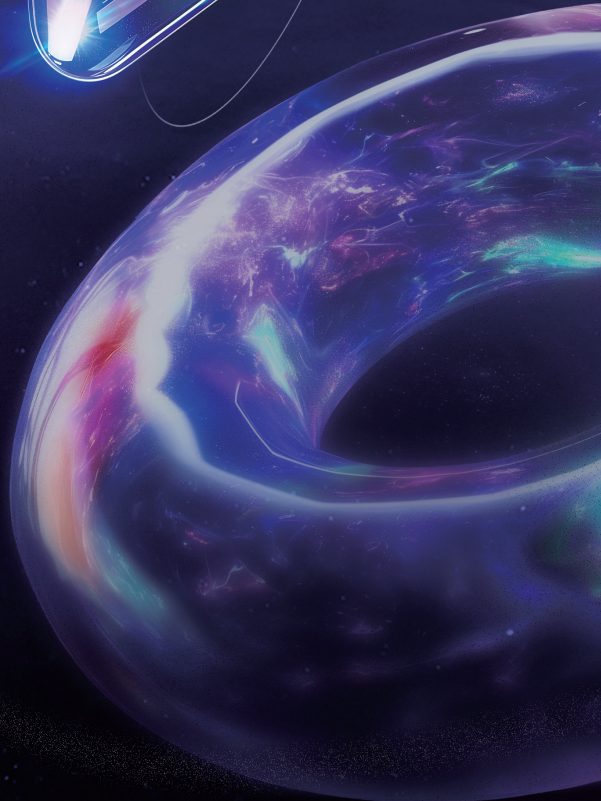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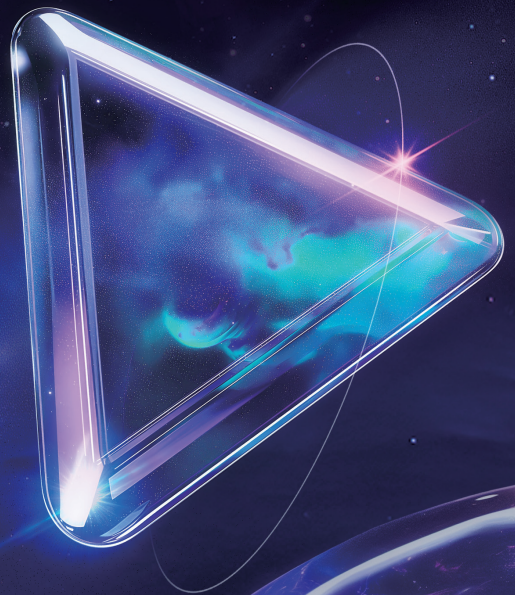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가  
교육의 가치를 더 깊게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이 가치들이  
곧, 우리 교육의 방향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하나가 모여,  
새로운 콘텐츠와 플랫폼이 되어  
교육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갑니다.

상상 그 이상 -

visang



선생님의 올바른 가치와  
참된 가르침처럼  
78년 간 교과서를 만들어  
온 사명으로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교과서 발행부수 1위 기업, (주)미래엔

\*2025년 교과서 발행 부수 기준

MiraeN



미래엔 교수지원플랫폼 엔티치  
[www.m-teacher.co.kr](http://www.m-teacher.co.kr)

